

음식물처리기 '1조 시장' 눈앞

중소 독주 맞선, 삼성·LG '가세'

구매보조금 정책 시장성장 가속
LG전자 40세대 시범사업 진행
실증·보완 거쳐 연내 제품출시
삼성전자 '더 제로' 상표권 확보
비스포크 디자인 고급형 공략

과시성 소비를 지양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요노(You Only Need One) 소비'가 급부상하면서,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고기능성 제품을 준비하며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3일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GII)에 따르면, 2021년 2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시장은 2024년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대 30만 원, 부산시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스마트카라, 미니스, 웰퍼 등 중소기업이 주도해왔다. 이들 기업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스마트카라는 최근 가격 부담을 낮춘 '스마트카라 400 SE'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어떤 음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부피를 최대 94%까지 줄이고, 처리 과정 중에도 추가 투입이 가능한 편의성을 갖췄다. 기존 제품 대비 2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큰



LG전자가 출시 예정으로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 설치 예시. /LG전자

관심을 받고 있다.

미니스는 소형 가구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콤팩트 모델을 선보이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웰퍼는 저소음·저전력 기술을 앞세워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시장에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면서 시장 판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안산시 공동주택 4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 보완 작업을 거쳐 연내 정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물 처리를 넘어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더 제



스마트카라 400 SE. /스마트카라

로'라는 이름으로 음식물처리기 상표권을 출원하고,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 더 제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고급형 제품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진출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가전업계 전문가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 규모 자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왔다"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현대위아, 韓 첫 후륜구동 '2속 ATC' 양산

기아 첫 픽업 '타스만' 탑재

현대위아가 모든 노면에 최적화된 구동력을 분배하는 사륜구동(4WD)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대위아는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후륜 기반 전자식 4WD 부품인 '2속 ATC(Active Transfer Case)'를 개발, 양산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2속 ATC는 후륜(뒷바퀴) 구동 자동차의 구동력을 주행 상황에 맞게 앞바퀴나 뒷바퀴로 분배해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부품이다. 2속 ATC를 개발해 양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위아가 처음이다. 현대위아의 2속 ATC는 기아의 첫 번째 픽업 트럭인 타스만에 탑재된다.

현대위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2속 ATC를 개발했다.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주행 모드(2 HIGH, 4 AUTO, 4 HIGH, 4 LOW)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나 도심 주행 등 일상적 운행에서는 후륜구동 차량과 동일하게

달리는 '2 HIGH' 모드를 선택하는 식이다. 일상에서 사륜구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후륜에 필요한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4 AUTO' 모드를 선택해 주행하면 된다.

현대위아는 2속 ATC가 주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동력을 빠르게 판단해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운전자의 입력과 노면에 따라 0.01초마다 판단해 필요한 구동력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위아는 2속 ATC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극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산악도로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고온과 모래지형 내구 테스트를 펼쳤다. 영하 30도에 이르는 스웨덴 북부에서도 빙판길 신뢰성을 검증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눈으로 덮인 30도의 오르막길을 '4 LOW' 모드로 주행하며 성능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대위아는 2속 ATC 양산으로 사륜구동 풀 라인업을 갖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솔제지, 친환경 종이 포장재 日 진출

'프로테고' 커피패키징에 적용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인 '프로테고(Protego)'가 일본커피패키징 시장에 진출했다.

한솔제지는 프로테고가 일본 온라인 커피전문 쇼핑몰인 'Something Like That'에서 판매하는 원두커피 3종과 드립백 5종에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Something Like That'은 일본 내 커피 애호가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커피와 관련 용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피 전문 쇼핑몰이다.

세계 3위의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한솔제지는 이 같은 일본 커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친환경 커피 봉투 전문 업체인 소프트팩과 협업해



일본의 섬생라이프가 판매하는 원두커피 제품에 한솔제지 친환경 포장재 '프로테고'가 적용돼 있다. /한솔

일본 수출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제품 패키징에 적용한 프로테고는 플라스틱 필름과 유사한 수준의 산소 및 수분 차단성을 갖춘 제품"이라며 "종이 소재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해 자원순환체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DX분야 등 첨단인력 양성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간담회
청창사, 일부시설 국민·기업 개방
趨 "적재, 적소, 적시 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등 첨단 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한다. 미국의 관세폭탄과 자국내 글로벌 기업 유치로 각국의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수요 기업을 연계하는 등 취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사진)는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방은 더더욱 그렇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대응이 가능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 소스를 다양화하고 무엇보다 적재, 적소, 적시에 기업들이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진공

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AI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등을 위해 신기술중점학교를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22곳, 기술사관 사업단은 17곳에서 19곳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38억원을 투입해 총 6000명의 인력을 육성한다.

스타트업에 위한 AI 인력 양성을 위한 '이어드림스쿨'도 우수 교육생 연수 및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해 내실을 다졌다.

중소기업이 다니는 재직자의 AI·DX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DX 인력양성사업도 강화했다. 91개 계약학과를 통해 약 2600명, DX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약 6만명의 재직자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창업 경쟁력도 더욱 높인다.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올해부터 글로벌형(5곳), 투자형(6곳), 지역특화형(7곳)으로 개편했다. 글로벌형 청창사는 신산업, 초격차, K-뷰티 및 전통제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트랙을 신설해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청창사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운동장, 체육관,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조이사는 "이와 별도로 운영중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14대1의 경쟁률에 이어 올해도 10대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다"면서 "올해는 지원대상을 60개사로 넓히는 등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취업 전 단계도 지원한다. 구축을 끝낸 '취업매칭 플랫폼(K-work)'에는 현재 수요 기업 800여곳, 외국인유학생 5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일렉링크,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ESG 가치 실현 제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을 지속해 온 SK일렉링크가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K일렉링크는 보유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규제와 관계없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SK일렉링크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발행받을 예정이다.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량에 대체하고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를 저감하게돼 탄소배출권을 지급 받게되는 것이다.

SK일렉링크 박원재 기획운영실장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ESG 가치 실현의 폭을 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자 이번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라 설명했다.

SK일렉링크는 향후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온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과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여 마켓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